한국사 기말 대비 정리

1.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

■ 동트는 우리 역사

(1) 구석기 시대

- 생활 : 불, 언어 사용, 사냥과 채집
- 거주 : 동굴, 막집, 바위 그늘
- 사회 : 무리 지어 <u>이동 생활</u>, <u>평등 사회</u>
- -도구(뗀석기): 주먹도끼 → 슴베찌르개, 활 등장 (기온 상승에 따른 이동 & 환경 적응)
- + 예술 : 공주 석장리, 단양 수양개 유적 → 사냥의 성공과 다산 기원

(2) 신석기 시대

- 생활 : 사냥과 채집 + 농경과 목축(신석기 혁명) → 탄화된 곡물, 빗살무늬 토기, 애니미즘 등이 증거
- 거주 :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을 짓고 생활 → 마을을 이룸
- -사회 : 정착 생활, 평등 사회, 씨족들 간의 족외혼을 통한 부족사회 형성
- -도구(간석기) : 돌도끼, 돌화살촉 + 빗살무늬 토기, 가락바퀴 & 뼈바늘 → 농경과 의복 제작의 증거
- -신앙: 애니미즘(자연물 숭배), 샤머니즘(무당, 주술 숭배), 토테미즘(동물 숭배), 영혼과 조상 숭배
- + 예술 : 조개껍데기 가면, 얼굴 모양 토제품

(3) 청동기 시대

- 생활 : 벼농사 시작, 농경(관개 농업) 발달 → 사유 개념 발생
- 사회 : 빈부 격차 발생, 계급 분화(전쟁 활발), 군장 등장(고인돌 & 천손 사상, 제사 주관), 국가 출현
- 도구 : 간석기(반달 돌칼 → 벼농사), 민무늬 토기, 비파형 동검
- 고인돌 : 탁자식(북방식), 바둑판식(남방식)으로 나뉨
- 고조선 : 청동기 시대에 출현한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

(4) 철기 시대

- 생활 : 농업 생산력 향상(철제 농기구), 정복 전쟁 활발(철제 무기) → 부족 사회 간 통합
- 사회 : 교역 확대(명도전, 반량전 등 중국 화폐), 한자 사용(붓) → 중국과 교류 활발
- -도구: 청동기(제사 의식용 도구), 철기(무기, 농기구)
- 독자적 청동기 문화 발달 : 비파형 동검 → 세형 동검, 거친무늬 거울 → 잔무늬 거울, 거푸집
- + 예술 : 의식용 도구 제작, 사후세계 믿음(껴묻거리), 바위그림

(5) 고조선의 성장

- <u>-</u> 건국 : 기원전 2333년, 단군왕검(제사장 + 군장)이 건국(삼국유사) → <u>제정일치 사회</u>
- 단군 신화 : 부족 간 결합, 지배 계급 출현 → 청동기 & 농경 문화 반영
- 이념 : 천손사상을 앞세운 정복 & 연맹 → 홍익인간 이념으로 발달
- 영역 : 랴오닝 지방 중심 → 한반도 북부까지(비파형 동검, 탁자식 고인돌, 미송리식 토기 등이 증거)
- 성장 : 국가 체제 정비 & 철기 문화 수용 → <u>왕위 세습(</u>기원전 3세기), <u>관직 설치</u>(상, 대부, 장군 등),연과 대립
- 사회 : 8조법(생명 & 노동력 & 사유 재산 중시, 계급 & 농경 사회), 남성 중심 가부장적 가족 제도

(6) 위만의 집권(위만 조선)

- 배경 : 진 · 한 교체기에 망명한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즉위
- 발전 : $\underline{\delta}$ 기 문화 적극 수용, 활발한 정복 활동, 한 · 진 사이에서 중계 무역 → 연맹 왕국으로 발전
- 멸망 : 기원전 108년, 한 무제의 침입으로 왕검섬 함락(지배층 내분) → 한 군현 설치
- 사회 변동 : 한 군현에 토착민들 저항 → 법 조항 증가 (8조 → 60여 조)

(7) 부여

- 국가 단계 : 연맹 왕국(왕과 군장들), 가축 이름을 딴 관리들이 사출도 지배(왕 문책, 왕 선출)
- 경제 : 농경과 목축, 말 · 주옥 · 모피 등 특산물 수출
- 풍속과 법 : <u>영고(제천행사, 12월)</u>, 형사취수제(혼인풍습), 순장, 우제점복, 4조목
- 쇠망 : 3세기 말 선비족의 침입으로 세력 위축 → 5세기 말 고구려에 흡수
- 의의 : 고조선 다음 출현 국가, 고구려와 백제의 토대

(8) 고구려

- 성립 : 부여계 유이민과 압록강 유역 토착민 결합 → 주몽이 건국(기원전 37, '삼국사기')
- -국가 단계: 연맹 왕국 단계, 제가 회의를 통한 국가 중대사 결정
- 정복 활동 전개 : 주변국과 한 군현 공략, 평야 지대 진출 모색,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
- 풍속과 법 : 동맹(제천행사, 10월), 서옥제(혼인풍습), 조상신 숭배(유화부인, 주몽)

(9) 옥저와 동예

- 국가 단계 : 군장(읍군, 삼로) 국가 단계에서 고구려에 흡수
- 경제 : 토지 비옥, 해산물 풍부
- 특산물(동예) : 방직 기술(명주 & 삼베), 단궁(활), 과하마(조랑말), 반어피(바다표범 가죽)
- 풍속(옥저) : 민며느리제(혼인풍습), 가족 공동묘제
- 풍속(동예): 족외혼(혼인풍습), 책화, 산천 중시, 무천(제천행사, 10월)

(10) 삼한

- 성립 : 고조선 유이민 남하로 한강 이남 사회 발전 → 삼한 결성(마한, 변한, 진한)
- 경제 : 철기 문화와 농경 문화 발달, 변한 → 철을 화폐로 사용 & 수출(낙랑군, 왜)
- 풍속 : 제정 분리 사회(신지, 읍차 등의 군장, 천군과 소도), 5월 수릿날과 10월 계절제(제천 행사)
- 변화 : 마한 → 백제, 변한 → 구야국, 진한 → 사로국

■ 삼국의 성립과 정치 발전

(1) 고대 국가의 특징

- 왕권 강화 : 국왕이 정복 전쟁 주도 → 영역 확대, 왕위 세습권 확립, 족장 세력을 중앙 귀족으로 흡수
- 통치 체제 정비 : 중앙 관제와 지방 조직 정비, 관등 · 관복제 제정, 율령 반포
- -사회 통합 : 불교 수용(국왕 중심의 지배 이념)
- 고대 국가 기틀 마련 : 고구려(2세기), 백제(3세기), 신라(4세기 후반)
- 귀족 회의 제도 발달 : 고구려(제가 회의), 백제(정사암 회의), 신라(화백 회의)

(2) 고구려의 성장 (주몽 건국)

- 태조왕(1세기) : 요동 지방 공략, 옥저 복속 → 왕권 강화, 계루부 고씨의 왕위 독점적 세습
- 고국천왕(2세기 후반) : 부족 전통 5부 → 행정적 5부, 왕위의 부자 상속
- 미천왕(4세기 초) : 중국 세력 축출(낙랑군), 대동강 유역 확보
- 위기 : 전연(선비족)과 백제의 연이은 공격(고국원왕 전사)
- -소수림왕: 전진과 수교, 불교 수용, 태학 설립, 율령 반포

(3) 백제의 성장 (온조 건국)

- 고이왕(3세기) : 한강 유역 장악, 한 군현과 항쟁, 6좌평의 관제 마련, 관복제 제정, 율령 반포
- 근초고왕(4세기): 마한 통합, 평양 공격(서남해 해상 교역로), 요서 진출, 규슈와 교류, 왕위 부자 상속
- 침류왕 : 불교 공인

(4) 신라의 성장 (박혁거세 건국)

- 초기 정치 : 박 · 석 · 김씨 중에서 이사금(왕) 선출
- 내물왕(4세기 후반) : 낙동강 동쪽 진한 지역 장악, 김씨 왕위 세습권 확립, 마립간(왕) 칭호 사용
- -고구려의 간섭: 내물왕 때 고구려(광개토 대왕)의 도움을 받아 가야·왜 연합 세력 격퇴

(5) 가야 (김해 금관가야 중심, 3세기)

- 발전 : 벼농사와 철기 문화 발달, 중계 무역으로 번성
- 쇠퇴 : 신라 · 고구려 군의 공격으로 금관가야 쇠퇴 → 대가야 중심 후기 가야 연맹 형성(5세기 후반)
- 멸망 : 소국의 독립성으로 인해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로 성장 실패 → 신라에 흡수(6세기)

(6) 삼국의 경쟁

- 국제 정세 : 중국 → 5호 16국 시대에서 남북조 시대에 이르는 분열기
- 삼국의 경쟁 : 4세기 후반 직접 맞닿은 국경 → 본격적 항쟁 전개, 국제 정세 이용, 한강 유역 쟁탈

(7) 고구려의 발전 (5세기)

- 광개토 대왕 : 정복 활동 활발, 백제 압박, 신라와 협력해 왜군 격파(내물왕), 가야 공격, 요동 · 만주 일대 장악 → 독자적 연호 '영락' 사용
- <u>장수왕</u> : 남북조와 동시 외교, 북방 유목 민족과 활발한 교류, <u>평양 천도</u>(427), <u>한강 유역 장악</u>(475) → 광개토 대왕릉 비, <u>충주 고구려비</u>

(8) 백제의 중흥 노력 (6세기)

- 위기 : 신라와 나 · 제 동맹(443)을 맺어 고구려 남진 정책에 대항 → 한강 유역 상실, 웅진 천도(475)
- -동성왕: 나·제 동맹 강화, 중국 남조와 국교 재개
- 무령왕 : 지방 통제 강화(지방 22담로에 왕족 파견)
- -성왕 : 사비 천도, 국호 남부여 선포(부여 계승), 통치 조직 정비, 불교 장려, 신라와 협공하여 한강 하류 탈환 → 신라에 상실 후 진흥왕 군대에 사망(관산성 전투)

(9) 신라의 발전(6세기)

- 지증왕 : 우경과 수리(저수지) 장려, 국호 신라, 왕호 왕 사용, 전국 주 · 군 · 현 정비, 우산국 복속
- 법흥왕 : 불교 공인, 율령 반포, 병부 미 상대등 제도 설치, 연호 '건원' 사용, 금관가야 흡수
- <u>진흥왕</u> :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, 한강 유역 차지, 대가야 정복, 함경도 지방까지 영토 확대 (단양 신라 적성비 & 순수비 4개 건립)

(10) 동아시아 국제 정세의 변화

- 중국 : 통일 왕조 수(6세기 말) 등장 & 연이어 당 등장 → 고구려(돌궐과 연합)와 동아시아 패권 다툼
- 십자형 외교 전개: 남북 진영(돌궐·고구려·백제·왜) VS 동서 진영(수·당·신라)

(11) 고구려 VS 수 · 당

- -수의 침입 격퇴 : 고구려의 요서 지방 선제 공격 → 수 문제의 침공(성과 X) → 수 양제의 침략, 살수 대첩(612, 을지문덕의 활약)으로 크게 승리 → 수 멸망
- 당의 침입 격퇴 : 당 태종의 즉위 → 요동에 천리장성 축조, 연개소문의 강경 대응 → 당 태종의 공격, 안시성 싸움(645, 양만춘)에서 물리침
- 의의 : 민족의 방파제 역할(백제, 신라를 중국 세력으로부터 보호), 그러나 오랜 전쟁으로 국력 손실

(12)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

- -나·당 연합 결성: 신라와 당이 백제·고구려를 무너뜨리기 위해 동맹
- 백제 멸망 : 나 · 당 연합군의 공격(황산벌 전투, 계백) → 지배층 분열, 사비성 함락으로 멸망(660)
- 고구려 멸망 : 연이은 전쟁으로 국력 소모, 연개소문 사후 지배층 분열 → 평양성 함락 후 멸망(668)

(13) 백제와 고구려의 부흥 운동

- 백제 : 흑치상지, 복신 · 도침 중심의 부흥 운동 전개, 왜의 지원군 파견(백강 전투)
- 고구려 : 고연무 · 검모잠 · 안승 중심으로 부흥 운동 전개, 요동 지역의 부흥 운동 지속

(14) 신라의 삼국 통일

- 나 · 당 전쟁 배경 : 당이 웅진도독부, 계림도독부, 안동도호부 설치
- 신라의 대응 : 왜와 외교 관계 회복 도모, 백제 · 고구려 유민과 협력하여 당과 전쟁 → 매소성과 기벌 포에서 승리 → 삼국 통일 완수(676)
- 한계: 대동강 이남 지역 확보에 한정, 당 세력과 연합
- 의의 : 자주적 통일(당을 무력으로 물리침), 평화 정착, 삼국 문화를 융합하여 민족 문화의 기틀 마련

■ 남북국의 정치 발전

- (1) 통치 체제의 변화
- 왕권 전제화
- 무열왕(김춘추) : 최초의 진골 출신 왕 → 무열왕계 직계 후손이 왕위 계승
- ❷ 문무왕 : 삼국 통일 완수, 대왕암(문무왕 해중릉)
- ❸ 신문왕 : 김흠돌의 난 진압, 진골 귀족 숙청, 녹읍 폐지, 관료전 지급 → 전제 왕권 확립(만파식적)
- -통치 체제 개편
- 중앙 : 집사부(왕명수행) 강화, 사정부(관리감찰) 설치 → 상대등 권한 ↓, 중시(집사부 장관) 권한 ↓ 관료전 지급 & 녹읍 폐지 → 귀족의 경제적 기반 약화

왕권 전제화 + 귀족 약화 + 국학 설립(유학 교육) → 6두품 정계 진출 활발(행정 실무 담당)

- ❷ 지방: 9주 5소경 체제 편성, 외사정(지방관 감찰) 파견, 상수리 제도(지방 세력 수도서 통제)
- ❸ 군사 : 9서당(중앙) 10정(지방, 북쪽 국경 지대인 한주는 2정 배치)
- 민족 융합을 위한 노력
- 고구려와 백제의 옛 지배층에게 골품과 관직(제한적) 수여
- ❷ 신라, 백제, 고구려의 옛 땅에 각각 3주씩 설치
- **❸** 중앙군인 9서당에 신라인 · 고구려계 · 백제계 · 말갈계 포함

(2) 신라 하대의 변화

- 왕위 쟁탈전 : 진골 귀족 간의 왕위 쟁탈전 전개 → 왕권 약화, 상대등의 힘 강화
- 농민 생활 곤궁 : 귀족의 사치, 가혹한 수취 → 노비나 초적이 된 농민 → 농민 봉기(원종 · 애노의 난)
- 지방 호족 성장 : 지방의 행정권, 군사권 장악, 6두품 출신 유학자 & 선종 승려와 연합
- -6두품의 동향: 골품제 모순 비판(유교 사상), 개혁 요구 → 반 신라적 경향
- 선종과 풍수지리설 유행 : 중앙 정부 권위 약화, 지방 호족과 연결

(3) 후삼국 성립

- 후백제(900) : 견훤이 건국, 도읍 완산주
- 후고구려(901) : 궁예가 건국, 도읍 송악(개성)

(4) 발해의 건국(698)

- 과정 : 요동을 중심으로 고구려 부흥 운동, 거란인 봉기 → 대조영이 고구려 · 말갈인과 동모산서 건국
- 의의 : 고구려 멸망 후 30년 만에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가 만주를 무대로 일어난 것(일본에 보낸 국서)

(5) 발해의 발전

- 영토 확대 : 건국 초부터 고구려 옛 땅 수복 노력 → 당의 견제(흑수 말갈, 신라)
- 무왕 : 당과 대결(장문휴의 등주 · 요서 원정), 돌궐 · 일본과 친교 → 동북아시아 세력 균형
- 문왕 : 당과 친선(문물 수용), 신라와 사신 교환, 3성 6부 정비 →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통치 체제
- 선왕(9세기) : 말갈 세력 복속, 요동과 연해주 진출, 5경 15부 62주의 지방 행정 체제 정비 → 상경성 (수도) 번성, '해동성국'
- 독자적 연호 사용 : 인안, 대흥, 건흥 등 → 왕권의 강대함 과시, 당과 대등하다는 인식

(6) 발해의 통치 체제

- 중앙 : 3성 6부(당의 제도 수용, 명칭과 운영은 독자적) → 정당성(행정 담당)의 대내상이 국정 총괄,

6부(둘로 나뉨) 명칭에 유교 이념 반영, 주자감 설립(유교 교육), 당에 유학생 보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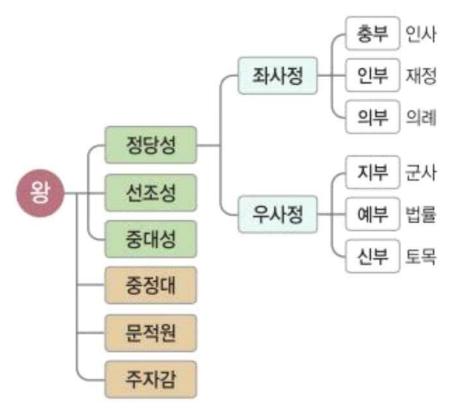
- 지방 : 5경(전략적 요충지) <u>15부 62주(지방관 파견)</u> 체제, 말단 촌락은 촌장 관리

- 군사 : 10위(중앙군), 지방군(지방관이 지휘)

(7) 발해의 멸망

- 멸망 : 내부의 권력 투쟁, 거란족의 성장 →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

-부흥 운동 : 후발해, 정안국, 대발해국 등 부흥 운동 전개, 발해 왕대 대광현은 유민과 신라로 망명



▲ 발해의 중앙 정치 기구

■ 경제 활동과 사회 모습

(1) 귀족 중심의 경제 생활

- 국왕 : '왕토 사상' 바탕으로 조세 수취, 관리(귀족)에게 토지 지급 → 실제로는 개인 소유지도 존재
- 귀족 : 식읍(공신 · 왕족), 녹읍(귀족 관료)으로 토지와 농민에 대한 지배권 행사, 사유지 · 노비 소유
- 농민 : 자기 소유지나 귀족의 토지 경작, 국가와 귀족에게 조세(곡물·포), 특산물, 노동력 납부

(2) 농업 생산력 증진을 위한 정책

- 배경 : 시비법(거름) 미비로 토지의 생산성이 낮음 → 농사 후 일정 기간 묵혀야 함
- 정책 : 철제 농기구 보급, 우경 장려, 황무지 개척, 수리 시설(보, 저수지) 확충, 농업에 소홀한 관리 문 책, 유랑민을 모아 농사짓게 함, 진대법(고국천왕, 곡식 대출)

(3) 상공업과 대외 무역

- 수공업 : 국가에 수공업을 담당하는 관청을 두고 장인을 소속시킴 → 국가나 왕실에서 필요한 물품 생산
- 상업 : 수도에 시장 개설(신라 6세기 지증왕 때 경주에 동시) → 동시전(감독), 지방 특산물 매매(행상)
- -국제 무역(공무역): 4세기 이후 크게 발달, 금·은·인삼·직물 수출, 비단·서적·도자기 수입
- 고구려의 교역 : 중국의 남북조, 북방 유목 민족 등과 교역
- 백제의 교역 : 중국의 남조 및 왜와 교역, 서남해 교역로 장악
- 신라 : 초기에 고구려와 백제를 통해 중국과 교류 → 한강 유역 차지 후 중국과 직접 교류

(4) 통일 신라의 경제 정책

- 토지 제도의 변화
- 신문왕 : 관료전 지급, 녹읍 폐지(귀족 세력 견제 의도) → 8세기 후반 귀족 반발로 녹읍 부활
- ② 성덕왕 : 백성에게 정전 지급 → 백성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 강화

- 수취 제도 정비

- ❶ 민정문서 : 매년 촌락의 변동 사항을 조사하여 3년마다 기록(8세기 기준) → 조세 · 공물 · 역 부과
- ❷ 조세 : 수확량의 10분의 1정도, 남의 토지 경작 시 수확량 반 이상 주인에게 납부
- ❸ 공물 : 촌락 단위로 특산물 납부
- 4 역 : 군역과 각종 부역
- ⑤ 향·부곡 : 일반 농민보다 더 많은 공물 부담

(5) 통일 신라의 경제 활동

- 상업 : 농업 생산력 성장, 인구와 상품 수요 증가 → 경주에 서시, 남시 추가 설치, 지방에도 시장 열림
- 대외 무역 : 공·사무역 성행, 이슬람 상인 왕래(울산항), 견직물·베·세공품 수출, 비단·서적·사치품 수입
- 신라인 해외 진출 : 당 산둥 반도 → 신라방(촌, 마을) · 신라소(파출소) · 신라관(여관) · 신라원(절)
- 장보고의 활약(9세기) : 완도에 청해진 설지, 해적 소탁 → 해상 무역권 장악

(6) 신라 말기의 경제 상황

- 귀족 : 8세기 후반 녹읍 부활, 대규모 농장 소유 → 농민 예속, 국가 재정 궁핍
- 농민 : 귀족에게 토지 상실, 조세 부담 증가 → 노비로 몰락, 유랑민 → 농민 봉기 증가(적고적, 초적)

(7) 발해의 경제

- 농업: 밭작물 재배(일부 지역에선 벼농사), 철제 농기구 이용, 우경 시행
- 목축·수렵: 말, 모피, 녹용, 사향 등을 높은 가격에 수출
- 수공업 · 상업 : 금속공예 · 직물 · 도자기 등 수공업 발달, 상경 용천부(수도)·교통 중심지서 상업 번성
- 대외 무역: 당(발해관), 일본(일본도, 대규모), 신라(신라도) 및 서역과도 활발히 교류

(8) 신분제 사회 형성

- 형성 : 호민(부자), 하호(평민), 노비 (부여, 초기 고구려, 삼한) → 귀족, 평민, 천민 (중앙 집권 국가)
- -특징 : 대대로 세습, 개인의 사회적 지위는 혈통에 따라 결정, 귀족 중심
- 고구려 지배층 : 왕족 고씨와 5부 출신 귀족
- 백제 지배층 : 왕족 부여씨와 8성의 귀족
- 신라 지배층 : 김씨, 박씨, 석씨 → 이들이 지방 족장 세력을 통합, 편제하는 과정에서 골품제 마련
- 피지배층 : 평민(대부분 농민 · 자유민 → 조세·특산물·역 부담), 천민(대부분 노비, 포로·죄인·채무자)

(9) 삼국의 법과 풍속

- 법 : 지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법 제정 → 율령에 반영, 반역·패전 등 강력 처벌
- 풍속 : 혈연, 언어, 문화적 동질성 속에서 독특한 풍속 유지
- -고구려 풍속: 질박(소박)한 풍속, 상무적(씩씩한) 기품, 혼인 풍속 간소(죽음 대비 수의 준비)
- 백제 풍속 : 언어·풍속·의복이 고구려와 유사, 중국과 활발한 교류 → 중국 고전·사서 인기, 한문에 능숙
- 신라 풍속 : 중앙 집권 국가로의 뒤늦은 발전 → 화백 회의(만장일치제), 화랑도 등 초기 전통 유지

(10) 남북국 사회의 모습

- 통일 후 신라 : 민족 융합 노력, 대외 교류 활발, 골품제 변화(성골 소멸, 1·2·3두품 평민화)
- 신라 말 : 호족 성장, 농민 봉기, 유교 사상 기반 6두품 학자 → 골품제 바탕 신라 사회는 점차 해체
- 발해의 주민: 고구려계·말갈계, 지배층은 대부분 고구려계(왕족 대씨, 귀족 고씨)
- 발해 법·풍속 : 상층 사회(당 문화 수용), 하층 사회(고구려·말갈 전통 생활 모습) → 고구려와 유사
- -발해 사회 : 상무적 기풍(활쏘기, 말타기, 격구), 여성 지위가 높음(개인 지도 교사인 여사)

■ 폭넓은 대외 교류와 문화의 발전

(1) 삼국과 남북국 문화의 특징

- 고구려 : 북중국, 북방 민족 등과 교류·대결하며 성장 → 외래 문물을 비판적으로 수용, 강건한 문화
- 백제 : 남중국과 교류, 서남해 교역 주도 → 선진 문물 수용, 문화 전파국 역할, 세련·우아한 귀족 문화
- 신라 : 고구려 · 백제를 통해 중국과 교류 → 한강 유역 차지 후 중국과 직접 교류, 옛 전통 오래 유지
- 통일 신라 : 삼국 문화 종합 → 민족 문화의 기틀 마련, 당·인도·이슬람 문화 수용, 불국토의 이상 추구
- 발해 : 고구려 문화를 바탕으로 당 문화 수용, 말갈 문화 존속

(2)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 문화

- 삼국과 가야 문화의 전파 : 일본 아스카 문화(전기 · 고대 문화, 불교 중심) 발달에 영향
- 고구려 : 불교, 회화 등 선진 문화 전달(승려 담징 → 종이·먹·5경, 승려 혜자 → 쇼토쿠 태자 스승)
- 백제 : 정치적으로 밀접 → 의 · 역 · 오경박사 파견 → 유교·의학·천문·역법·불교(불상 조각, 건축) 전달
- 신라 : 조선술과 축제술(제방) 전파 → 한인의 연못(신라 기술로 축조된 일본 저수지)
- 가야 : 토기 → 스에키(토기)에 영향, 철기 문화 발달에 기여
- 통일 신라 : 유교와 불교 문화 전달 → 일본 하쿠호 문화(후기 문화) 발달에 기여
- 발해 : 일본 음악에 영향

(3) 삼국의 불교 수용

- 배경 :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로 성장하면서 왕권 중심 국가적 통합 필요 → 수준 높은 고등 종교 요구
- 수용 : 고구려(소수림왕, 372) · 백제(침류왕, 384) → 4세기, 신라(법흥왕) → 6세기(전래는 5세기)
- 역할 : 왕권 강화(왕즉불 사상), 신분 질서 정당화(업설), 새로운 국가 정신 확립
- 영향 : 미륵 신앙 → 백제의 미륵사지·신라 화랑도에 영향, 법회 개최, 중국과 서역의 선진 문화 수용

(4) 통일 신라의 불교

- 특징 : 불교 사상의 심화 발전(당·인도 불교 수용), 불교의 대중화
- 원효 : 화쟁 사상(종파 간 화합) 주장, 아미타 신앙 전파 → 불교의 대중화
- 의상 : 화엄 사상(모든 존재가 조화) 정립 → 신라 화엄종 창시 · 부석사 등 건립, 관음 신앙 전파
- 혜초 : 인도와 서역 순례 → 왕오천축국전
- 진표 : 점찰 법회(점을 침)

(5) 선종(참선 수행, 깨달음 중시)

- -시기 : 통일 무렵 전래 → 신라 말에 유행
- 특징: 개인적 정신세계 추구·실천적인 경향 → 호족 세력과 결합
- 영향 : 지방 문화의 발달에 영향, 고려 사회 건설에 사상적 바탕 마련, 승탑과 탑비가 유행

(6) 발해의 불교

- 특징 : 고구려 불교의 전통 계승, 왕실과 귀족 중심, 관음 신앙 등 다양한 불교 신앙 유행(관음보살상)

(7) 도교

- 유래 : 삼국 전래 → 귀족 사회서 유행, 예술에 영향(백제 산수무늬 벽돌·금동대향로, 고구려 사신도)
- -목적: 귀족과 관련된 불교 세력 억제(고구려 연개소문)
- 풍류도 : 유교·불교·도교의 정신을 모두 포함한 우리 고유의 사상, 신라 화랑들이 수행

(8) 풍수지리설

- 배경 : 신라 말 귀족의 향락 · 사치에 대한 반발 → 도선(선종 승려)에 의해 전래
- 내용 : 산·물·땅의 모양을 살펴 도읍, 주거지, 묘지 등을 정함 → 예언적인 도참사상과 결합
- 영향 : 자연환경이 국가와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준다는 믿음으로 확대, 호족이 세력 확대에 이용

(9) 삼국의 교육과 역사서 편찬

- 고구려 : 태학(수도, 소수림왕) · 경당 설립, 역사서 '유기' → '신집' 5권(영양왕 때 이문진)
- 백제 : 오경 · 의 · 역박사 → 유교 경전 · 의학 · 천문 · 역법 교육, 역사서 '서기'(근초고왕 때 고흥)
- 신라 : 청소년들이 유교 경전 공부(임신서기석), 역사서 '국사'(진흥왕 때 거칠부)
- 교육 목적 : 한학과 유교(도덕 규범) 교육 장려 → 학식 있고 충성스러운 인재 양성
- 역사서 편찬 배경 : 학문 발달 · 국가 체제 안정 → 국력 과시 · 왕권 강화

(10) 통일 신라의 유학

- 국학 : 신문왕이 설립 → 태학으로 개칭(경덕왕), 박사와 조교를 두어 유교 경전 교육
- 독서삼품과 : 원성왕이 시행,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 시험 → 골품제 때문에 기능 X, 유학 보급에 기여
- 학자 : 주로 6두품 출신, 국왕에게 정치적 조언·실무 담당
- 강수 : 뛰어난 외교 문서 작성
- 설총 : 이두 정리(한자 음뜻 표기), '화왕계'(꽃에 신하 비유) 저술, 유교적 도덕 정치 강조, 원효 아들
- 김대문 : '화랑세기', '고승전', '한산기' 등 저술 → 신라의 문화를 주체적으로 인식
- 도당 유학생 : 골품제 사회의 모순 비판(실력보다 골품 중시) → 반신라적 경향(최치원, 개혁안 10여조)

(11) 발해의 유학과 한문학

- 유학 : 주자감 설립, 당에 유학생 파견, 유교 덕목을 6부의 명칭으로 삼음
- 한문학 : 정혜·정효 공주 묘지문, 양태사의 시 등 높은 수준

(12) 과학 기술의 발달

- 천문학과 수학 : 천체·천문 현상 관측(정치·농경과 밀접) → 천문학·역법·수학 발달 → 농사, 건축에 활용
- 금속 기구 발달 : 철제 농기구·무기·금속 공예품(성덕 대왕 신종)
- 목판 인쇄술·제지술: 통일신라의 불교문화 발달 → 불경 대량인쇄를 위해 발달(무구정광대다라니경)

(13) 고분(총, 무덤)

- 종류 : 돌무지무덤(벽화 X, 도굴 힘듬)·굴식 돌방무덤(벽화 O, 도굴 쉬움)·벽돌 무덤(중국 양식)
- 고구려 : 돌무지무덤(계단식, 장군총) → 굴식 돌방무덤(강서대묘, 사신도) · 모줄임천장 구조
- 백제 : 계단식 돌무지무덤(한성, 석촌동), 굴식 돌방무덤·벽돌무덤(웅진, 무령왕릉), 굴식 돌방무덤(사비)
- 신라 : 돌무지덧널무덤(천마총) → 굴식 돌방무덤(통일) → 규모 축소·화장 유행(둘레돌·12지 신상)
- 발해 : 정혜공주 묘(굴식 돌방무덤, 모줄임천장) → 고구려 양식, 정효공주 묘(벽돌무덤) → 당+고구려

(14) 건축과 탑

- 궁궐·성곽: 고구려 안학궁·통일 신라 안압지(경주 동궁·월지), 발해 상경성(온돌 → 고구려 문화)
- 사찰 : 신라 황룡사 · 백제 미륵사 · 통일 신라 불국사와 석굴암(불국토의 이상 반영)
- 삼국 시대의 탑 : 목탑 → 석탑(백제의 익산 미륵사지 석탑)
- -통일 신라 시대 : 이중 기단 위에 3층 석탑 양식(불국사 3층 석탑 = 석가탑)
- 신라 말: 다양한 석탑 등장, 선종의 영향 → 승탑과 탑비 건립(쌍봉사 철감선사탑)
- 발해 : 대부분 전탑(벽돌), 무덤 위에 세우기도 함(영광탑)

(15) 불상 · 서예 · 그림 · 음악

- 삼국 시대의 불상 : 중국의 영향(초기) → 개성 반영, 미륵 신앙의 영향(미륵보살 반가사유상)
- 통일 신라의 불상 : 균형미ㆍ이상적 아름다움 추구(석굴암의 불상) → 투박하고 개성 있음(신라 하대)
- 발해 : 관음상 · 이불병좌상 등 다양한 불상 제작
- -서예: 김생(통일 신라)
- 그림 : 고분 벽화, 천마도, 솔거(통일 신라, 유명 화가)
- -음악: 거문고(고구려 왕산악), 가야금 12곡(가야 우륵), 정읍사(백제), 향가 유행 → '삼대목'(신라)

2. 고려 귀족 사회의 형성과 변천

- 고려의 성립과 정치 발전
- (1) 고려의 건국(918)
- 국내외적 상황 : 중국 5대 10국 · 북방 거란의 성장 · 후삼국 성립
- 왕건 : 해상 무역으로 성장한 호족, 궁예의 부하 → 궁예를 몰아내고 왕으로 추대
- 건국 : 고구려 계승 → 국호 '고려', 철원(궁예) → 송악(개성)으로 천도

(2) 민족의 재통일(936)

- -통일 정책 : 호족 세력 통합, 중국 5대와 교류 → 후백제와 경쟁, 신라에 우호적
- 후삼국 통일 : 신라 병합(경순왕의 항복), 후백제 격파(견훤 귀순), 발해의 고구려계 유민 포섭(대광현)
- 의의 : 자주적 통일

(3) 태조의 정책

- 민생 안정 : 취민 유도(조세 부과의 법도) → 조세 인하, 흑창 설치, 불교 숭상 → 팔관회 · 연등회 중시
- 호족 통합 : 정략 결혼, 성씨 하사, 관직·토지 하사, 지역의 지배권 부분 인정
- 호족 견제 : 기인 제도(지방 호족의 자제를 수도에) · 사심관 제도(지방 통제)
- 북진 정책 : 고구려 옛 영토 회복 목적, 서경(평양) 중시·거란 배격 → 영토 확장(청천강 ~ 영흥만)
- 훈요 10조 :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 제시

(4) 광종의 개혁

- 노비안검법 : 노비를 양민으로 해방 → 국가 재정 확보, 공신과 호족의 경제 · 군사적 기반 약화
- 과거제 :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물 등용
- 공복(관복) 제정 : 관리의 기강 확립
- 호족 억압·왕권 강화: 호족·공신 세력 숙청, 황제 칭호·연호(광덕, 준풍) 사용

(5) 성종의 개혁

- 정치 이념 : 유교적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통치 체제 정비(최승로 시무 28조, 신라 6두품 출신 유학자)
- 통치 체제 정비 : 2성 6부제, 12목에 지방관 파견
- 교육 : 국자감 설치, 지방에 경학박사 파견 → 유학 교육 장려
- 의의 : 문치주의 전통 수립, 개인 능력 중시(신라보다 개방적)

(6) 중앙 통치 조직(귀족 중심)

- -특징 : 당(3성 6부 → 2성 6부)과 송(중추원, 삼사)의 제도를 참고 → 고려의 실정에 맞게 운영
- 2성 6부 : 중서문하성(국정 총괄, 장관 : 문하시중), 상서성(6부 관리 : 실제는 중서문하성, 정책 집행)
- 중추원 : 군사 기밀 · 왕명 출납 → 중서문화성과 더불어 통치 조직의 핵심
- 독자 기구 : 도병마사(<u>국방 문제</u>), 식목 도감(<u>법률, 제도</u>) → <u>귀족 합의 기구</u>(재신·추밀, 2품 이상)
- 대간 : 중서문하성의 낭사(3품 이하) + 어사대(관원) → 간쟁ㆍ봉박(왕명 거부)ㆍ서경권(법령 개폐)
- 기타 : 삼사(화폐·곡식의 출납 회계), 어사대(감찰 기구)

(7) 지방 행정 제도 정비

- 과정 : 성종 때 12목 설치·지방관 파견 → 현종 때 4도호부 8목 → 5도 양계로 정비
- -5도: 일반 행정 구역·안찰사 파견, 도 아래 주·부·군·현 설치·지방관 파견
- 양계 : 군사 행정 구역, 병마사 파견, 국방상 요충지에 진 설치
- 속현, 향·부곡·소: 주현의 수령을 통한 중앙 정부의 지배
- -특징 :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현 <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
- 향리 : 각 군현에 조직 마련, 조세·공물 징수·역 징발 등 행정 실무 담당 → 자식에게 세습

(8) 군사 제도

- 중앙군(직업 군인) : 2군(왕 친위 부대) · 6위(수도·국경 방어) → 군인전, 역 세습, 신분 상승(무신)
- 지방군 : 주현군(5도의 일반 군현) · 주진군(양계) → 16세 ~ 60세의 양인 장정으로 구성

(9) 교육 제도

- 학교 설치 : 유학 교육 중시 → 개경에 국자감(국학) 설치, 지방(주)에 향교 설립
- 국자감 : 유학(국자학·태학·사문학 → 관리 자제) + 기술(율·서·산학 → 양민 이상 자제)

(10) 관리 선발 제도

- 과거제의 구성: 제술과·명경과(문관 선발), 잡과(기술관), 승과(승려, 승계 부여), 무과(거의 실시 X)
- 과거제 응시 자격 : 법적으로 양인 이상 → 제술과 · 명경과는 귀족이나 향리 자제, 잡과는 일반 백성
- 과거제의 의의 : 신라 골품제와 달리 학문 능력이 중시
- 음서제 : 공신·고위 관리(5품 이상)에게 관직 수여 → 귀족 관료 지위 세습, 관료 체제의 귀족적 특성

(11) 문벌 귀족 사회의 성립

- 출신 : 호족 · 신라 6두품 출신의 유학자
- 형성 : 관직 독점(과거·음서), 경제적 혜택(과전:1~18과 · 공음전:5품 이상), 결속 강화(중첩·정략 결혼)
- 문제점 : 권력 독점·막대한 토지 소유 → 귀족 사회 내부의 분열, 과거로 진출한 신진 관료들의 반발

(12) 이자겸의 난(1126)

- 배경 : 경원 이씨(이자겸)의 왕실 외척(딸들을 왕에게 시집) → 권력 독점, 측근 세력과 갈등
- 진행 : 이자겸이 척준경과 함께 난을 일으킴 → 척준경의 배신으로 실패 → 척준경도 탄핵
- 영향 : 문벌 귀족 사회의 분열 심화

(13)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(1135)

- 배경 : <u>문벌 귀족(개경파) · 관료(서경파)의 대립</u>, 보수적 유교 · 자주적 전통(풍수지리설) 사상의 대립, 고구려 계승 의식에 대한 인식 차이
- 서경 세력 : 서경 천도 추진(풍수지리설 기반) → 칭제 건원(황제의 나라)ㆍ금국 정벌 주장
- 진행 : 대립 → <u>서경파(묘청)</u>이 반란(국호 '대위', 연호 '천개') → <u>개경파(김부식)</u> 관군에 1년 만에 제 안
- 결과 : 문벌 귀족 사회의 모순 심화 → 무신 정변으로 문벌 귀족 몰락

(14) 친송 북진 정책

- 북진 정책 : 서경 중시, 청천강까지 영토 확장(태조), 역대 왕들에 계승 → 고구려 계승 의식
- 친송 정책 : 중국의 발달된 문물 수용, 송은 거란 견제를 위해 고려와 협력
- 거란 배척 정책 : 고구려 계승 의식

(15) 거란의 침입

- 배경 : 고려의 거란 배척 정책 → 거란의 관계 개선 시도 → 실패, 대군과 함께 고려 침략
- 1차 침입(성종) : 서희 · 소손녕의 담판 → 강동 6주 획득
- 2차 침입(현종) : 강조정변 구실, 개경 함락 → 신하의 예를 갖춘다는 조건 제시(군신 관계), 양규 활약
- 3차 침입(현종) : 현종 입조·강동 6주 반환 요구 → 거절하자 개경까지 진출 → 강감찬의 귀주대첩
- 영향: 고려·송·요(거란) 사이 세력 균형, 국방력 강화(천리장성·개경의 나성 축조)

(17) 여진 정벌

- 여진의 성장 : 고려의 경제적 지원 · 도발 엄정 대처 → 12세기 초 부족 통일 후 국경 침범
- 여진 정벌 : 윤관(문벌귀족)이 별무반(신기·신보·항마군) 조직, 동북 9성 축조 → 반환(수비문제·요구)
- 여진의 사대 요구 : 여진의 금 건국 → 금의 군신 관계(사대 관계) 요구 → 집권자 이자겸 등이 수용
- 결과 : 북진 정책에 타격

(18) 무신 정변(1170)

- -배경 : 국왕(의종)의 실정과 향락 · 무신 차별 · 군인전 미지급 · 모욕으로 인한 불만 · 잡역에 동원
- 진행 : 정중부 · 이의방 등의 무신이 정변 → 문신 숙청 · 왕 교체 → 중방을 중심으로 국정 주도
- 반발: 김보당(병마사)·조위총(서경유수) → 진압

(19) 최씨 무신 정권

- 형성 : 최충헌의 권력 장악 → 60년(4대)간 지속
- -기반: 교정도감(권력 기구), 도방(사병 기관), 삼별초·도방(군사적 기반), 대토지 소유(경제적 기반)
- 성격 : 정권 유지에 집작 → 사회 개혁에 소홀 → 농민 · 천민 봉기

(20) 농민 · 천민의 봉기

- 배경 : 무신 정변 → 신분 질서 동요 · 무신의 횡포 · 지방관의 수탈 심화
- 하층민의 봉기 : 망이 · 망소이의 난(공주 명학소), 김사미 · 효심의 난(경상도)
- 신분 해방 운동 : 만적의 봉기 · 전주 관노비의 난

(21) 대몽 항쟁

- 몽골과 접촉 : 13세기 거란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고려와 첫 접촉 → 고려에 무리한 공물 요구
- 몽골의 침입 : 저고여 피살 사건(1225) → 몽골 침입(1231) → 강화 체결 후 강화도로 천도 → 항전
- 대몽 항쟁 : 하층민의 적극 항전 → 처인성 전투(김윤후), 충주성 전투 등
- 강화 : 무신 정권 붕괴 → 몽골과 강화, 개경 환도 → 삼별초 저항(강화도 → 진도 → 제주도) → 진압
- 영향 : 문화재 소실(황룡사 9층 목탑·초조대장경 소실 등), 국토 황폐화

(22) 원(몽골)의 내정 간섭

- 내정 간섭 : 부마국의 지위, 왕실 호칭 · 관청 명칭 낮아짐, 다루가치(관리) 도입, 특산물 · 공녀 요구
- 영토 축소 : 쌍성총관부(화주), 동녕부(서경), 탐라총관부(제주) 설치
- 일본 원정 : 두 차례 동원 → 실패, 고려의 큰 손실(인력 · 물자), 정동행성(개경)의 내정 간섭
- 교류 : 고려에 몽골풍 유행, 원의 지배층에 고려양 전래

(23) 권문세족

- -등장 : 원의 내정 간섭 이후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등장 → 친원적 성향
- 정치 : 음서로 관직 진출, 도평의사사(= 도병마사 → 도당) 장악
- 경제 : 대농장 차지, 농민 핍박 → 개혁 시도와 좌절

(24) 공민왕의 반원 개혁 정치

- 배경 : 14세기 한족의 반란 → 원 쇠퇴 · 왕권 강화
- 반원 자주 개혁 : <u>친원 세력 숙청(기철 등)</u>, <u>정동행성(개경) 폐지</u>, <u>철령 이북(쌍성총관부) 탈환</u>, 왕실 호 칭 · 관제 회복, 몽골풍 금지
- 내정 개혁 : 정방 폐지(인사권 장악), 신진사대부 등용, 권문세족 억압, 전민변정도감 설치 · 신돈 등용
- 결과 :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·신진 사대부 성장 미약·권문세족 반발 → 신돈·공민왕 제거로 중단

(25) 신진 사대부

- 구성 : 지방 향리의 자제(신분) · 중소 지주(경제적) → 과거를 통해 중앙 정치 무대에 진출
- 성격: 권문세족 비판, 성리학 수용, 친명적 성향

(26) 고려의 멸망

- 신흥 무인 세력의 성장 : 홍건적 · 왜구 격퇴 과정에서 최영과 이성계 등 성장
- -조선 건국: 이성계(신흥 무인 세력), 정도전·남은(급진파 신진 사대부) → 조선 건국(1392)

■ 경제 정책과 경제 활동

(1) 전시과 체제 마련(사전)

- 변화 과정 : 역분전(태조, 공신) → 시정전시과(경종, 인품·공복) → 개정전시과(목종, 관직) → 경정전 시과(문종, 현직관리)
- -특징: 전지(논밭)와 시지(땔감 구역) 지급, 수조권(조세) 지급, 관직 높낮이에 따라 지급(개정전시과~)
- 이용 : 귀족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제적 기반
- 붕괴 : 문벌 귀족의 대토지 집적 → 부실한 운영 → 무신 정변 · 대토지 소유 → 붕괴

(2) 전시과의 종류

- 과전 : 문무 관리에게 관직의 높낮이에 따라 지급, 차후 국가에 환수
- 공음전 : 5품 이상 관리, 세습 가능
- 한인전: 6품 이하 관리의 자제, 세습 불가
- 군인전 : 중앙 군인, 군역 세습 시 세습 가능
- 구분전: 하급 관리· 군인 유가족, 세습 불가

(3) 민전(공전)

- 소유권 보장 : 매매 · 상속 · 증여 · 임대가 가능한 귀족과 농민의 사유지
- 공전과 사전: 국가가 수조권 → 공전, 개인(관리)이 수조권 → 사전

(4) 수취 체제

- -목적 : 민생 안전, 국가 재정 확충
- 기준 : 양안(토지 대장), 호적
- 조세(토지) : 논과 밭 구분 → 3등급으로 구분(비옥도) → 수확량의 10분의 1 부과 → 조창 → 조운선
- 공물(토산물) : 호 단위로 부과 → 조세보다 더 큰 부담
- 역(노동력): 군역과 요역, 정남(16세 ~ 60세 미만 남성)
- 기타: 상세(상인), 어염세(어민)

(5) 농업 기술의 발달

- 중농 정책 : 개간 · 간척 장려 → 면세, 농번기 잡역 동원 금지, 재해 시 세금 감면
- 기술 : 저수지 ↑, 우경 일반화, 시비법 · 2년3작(밭) 발달, 모내기 법 보급, 목화 재배, '농상 집요'

(6) 수공업의 발달

- 전기 : 관청 수공업(왕실 물품·무기), 소 수공업(금·은·종이·먹 등 → 공물로 납부)
- 후기 : 사원 수공업(직물 · 소금 · 기와 등), 민간 수공업(가내 수공업 중심, 직물 · 놋그릇 · 도자기 등)

(7) 상공업

- 개경·대도시: 시전 설치, 관영 상점(서적·약·술·차 등), 비정기 시장(일용품)
- 지방: 시장(농민·수공업자), 행상의 활동
- 경시서 : 시전의 상행위 감독
- 후기 : 시전의 규모 확대, 조운로, 행상 활동 활발, 소금의 전매제, 육상 교역 증가 → 원(여관) 발달

(8) 화폐 주조

- 유통 : 활구(은병), 삼한통보, 해동통보, 해동중보, 건원중보
- 한계 : 널리 유통되지 못함 → 곡식이나 삼베 이용

(9) 송과의 교류

- -목적 : 선진 문물 수입 → 사신 · 상인 왕래, 유학생 · 유학승 교류
- 형태 : 공무역, 사무역(국가 통제로 쇠퇴), 북방의 거란 · 여진 → 벽란도 번창
- -무역: 서적·약재·사치품 수입 → 경제적 부담, 금·은·인삼·종이·먹 수출 → 금·은의 유출

(10) 거란 · 여진 · 일본과의 교류

- 거란·여진 : 북방안전 목적, 거란(공무역), 여진(사신이 고려에 공물) → (은·말·모피 → 곡식·농기구)
- 일본 : 답례품을 하사하는 형태(무역 제한, 수은 · 유황 → 인삼 · 곡식 · 서적)

(11) 아라비아 상인 왕래

- 형태 : 몇 차례에 불과했으나, 대규모로 방문
- -무역: 향료, 상아, 공작 등 진귀한 물품

(12) 원과의 교류

- 형태 : 대외 교역 활발 → 금 \cdot 은 유출, 공녀 \cdot 노비 등 인적 자원 유출, 사무역 > 공무역
- -동서 교류 활발 : 색목인(외국인) 귀화 → 관리나 상인으로 활동

■ 신분 제도와 생활 모습

(1) 고려의 신분

- 지배층 : 귀족·중류층 → 국가 운영, 행정 실무 담당
- 피지배층 : 양민 · 천민 → 생산 활동 종사

(2) 귀족

- 문벌귀족 : 고위 관직 차지 · 중첩 혼인 → 정치적 특권(과거·음서), 경제적 특권(공음전·과전·녹봉 등)
- 변화 : 무신(무신 정변 계기) → 권문세족(무신 붕괴 · 원의 내정 간섭 계기)

(3) 중류층

- 구성: 잡류(중앙 관청의 실무), 향리(지방 행정의 실무), 남반(궁중 실무), 하급 장교
- -특징: 고위 관직으로 진출 어려움, 자손에게 신분 세습, 국가로부터 토지 지급 받음
- 향리 : 호장 · 부호장 등 여러 단계로 구분, 과거를 통해 중앙 관리 진출 → 지방의 실질적 지배층

(4) 양민

- 구성: 백정(농민), 향·부곡(농업)·소(수공업) 주민
- 백정(농민) : 민전·남의 토지 경작, 조세 부담 → 과거 응시 가능(주·부·군·현)
- 향 · 부곡 · 소 주민 : 더 많은 세금, 거주 이전 제한, 국자감 입학 · 과거 응시 불가

(5) 천민(노비)

- 구성: 노비(대다수), 화척(도축업자), 재인(광대)
- 특징 : 재산으로 간주 → 매매·상속·증여의 대상, 일천즉천(자녀도 노비), 천자수모법(어머니 쪽 소유권)
- 종류 : 공노비(입역 노비 · 외거 노비), 사노비(솔거 노비 · 외거 노비)

(6) 신분 상승의 가능성

- 형태 : 향리 → 중앙 고위 관리, 군인 → 무관, 노비 → 양민, 향·부곡·소 → 일반 군현
- 의의 : 신라 골품제 사회에 비하여 좀 더 개방적

(7) 사회 시책

- -종류: 의창(빈민 구제), 상평창(물가 조절), 동·서 대비원(의료 기관), 혜민국(의약품), 제위보(기금 이자로 빈민구제)
- 정책 : 귀족·사원 등에 의한 고리대 성행 → 법으로 이자율 제한

(8) 법률과 풍속

- 특징 : 관습법 중심, 지방권이 사법권 행사
- 형벌 : 태(볼기), 장(곤장), 도(징역), 유(유배), 사(사형, 3심제) → 반역죄와 불효죄는 중죄로 다스림
- 상장제례(제사·장례) : 토착 신앙과 결합된 불교·도교의 의식(정부의 유교적 규범 시행 노력은 효과 X)
- 명절 : 정월 초하루, 삼짇날(음력 3월 3일), 단오(격구 · 그네 · 씨름), 유두, 추석

(9) 향도

- 기원 : 불교 신앙(매향)에 바탕을 둔 농민 공동체 조직

- 활동 : 매향 활동(향나무 심기), 대규모 불사(불상·범종·석탑·사찰 만들기)에 동원 → 지역 사회 통합

- 변화 : 마을 행사(노역 · 혼례 · 상장례 · 마을 제사 등) 주도 → 공동체 생활을 주도하는 농민 조직

(10) 가족 제도

- 구성 : 소가족(부부와 자녀), 대가족(부모 봉양·능력 없는 친척)

- 혼인 : 남자(20세) · 여자(18)세, 일부일처제, 왕실에선 친족 간의 혼인 성행 - 특징 : 남성 · 여성이 평등하게 재산 상속 → 부모 봉양 · 제사에 성 구분 X

(11) 여성의 지위

- 호적 : 여성도 호주 가능, 나이에 따른 호적 기록, 사위도 처가의 호족에 기록 가능 → 음서 혜택

- 재산권 : 결혼해도 노비 소유권 귀속, 평등한 재산 상속 → 부모 봉양 · 제사에 성 구분 X

- 재가(재혼) : 제한 X, 재가한 여성의 자손도 차별 X

- 의의 : 사회 활동에는 제한, 일상생활에서는 남성과 대등한 위치 → 다른 시대보다 여성의 지위가 높음

3. 서술형 정리

- 묘청, 서경 천도 운동을 추진하다(1135)
- (1) 배경
- 문벌 귀족(개경파)·관료(서경파)의 대립
- 보수적 유교·자주적 전통(풍수지리설) 사상의 대립
- 고구려 계승 의식에 대한 인식 차이
- (2) 서경 세력의 주장
- 서경 천도 추진(풍수지리설 기반) → 칭제 건원(황제의 나라) · 금국 정벌 주장
- (3) 진행
- 개경파와 서경파의 대립 → <u>서경파(묘청)</u>이 반란(국호 '대위', 연호 '천개') → <u>개경파(김부식)</u> 관군에 1
 년 만에 제압
- (4) 결과
- 문벌 귀족 사회의 모순 심화 → 무신 정변으로 문벌 귀족 몰락
- 고려, 신분 상승의 가능성
- (1) 사례
- 지방 향리: 과거 급제 → 고위 관리(중앙의 관리)
- 군인 : 전쟁에서 공을 세움 → 무관
- 외거 노비 : 재산을 주인에게 바침 → 양민(백정)
- (2) 의미
- 의미 : 신라 골품제 사회에 비하여 개방적
- 고려, 여성의 지위
- (1) 사례
- 재산권 보호 : 남자 형제와 재산 상속 공평, 여성의 노비 소유권 보장
- 호적 : 여성이 호주 가능, 성별 구분 없이 나이에 따라 기록
- 재가의 자유 : 재가(재혼)에 대한 제한 X, 재가한 여성의 자손도 별다른 차별 X
- 제사 : 남자 형제와 돌아가면서 지냄(윤회 봉사)
- (2) 특징
- 특징 : 사회 활동에는 제한과 차별 존재 → 일상생활에서는 남성과 거의 대등한 위치
- 의의 : 다른 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높음